

HEADLINE NEWS

도시 빈민가에 '식용 정원' 조성 사업 추진 (몬트리올)

UN과 캐나다정부의 지원으로 새로운 '도시 빈민가 정원 조성사업'이 아르헨티나 로사리오(Rosario), 우간다 캄팔라(Kampala), 스리랑카 콜롬보(Colombo) 등지에서 시작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은 흙으로 덮혀 과수와 채소가 재배될 예정이며, 발코니는 가축사로 바뀌고, 무너지고 있는 집은 철거 후 마을정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3년간 1백만달러가 지원될 예정인 '식용 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과거 전통적인 식량소비 중심지였던 위 도시들은 식량생산 중심지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식용 정원' 조성사업은 농업이 도시계획과 주택설계에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정책결정권자, 건축가와 설계가, 도시정책입안자와 관리자들과의 계획적 사고를 변화시키고 있다.

(www.canada.com/montreal/montrealgazette/news/story.html?id=d62c8c59-17f4-4f40-96ae-b09eb2ef0217)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새크라멘토 대도시권의 7가지 성장 원칙 (새크라멘토)
- ② 다운타운 재활성화 계획 추진 (애리조나州: 피닉스市)
- ③ 정보기술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저소득층 커뮤니티 활성화 (필라델피아)
- ④ 민간수법의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추진 동경

도시환경

- ⑤ 도로정비사업에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도입 (동경)
- ⑥ 조경 및 경관계획 분야의 '2004 Peter-Joseph-Lenne 賞' 수여 (베를린)

도시교통

- ⑦ 학교 주변의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서의 어린이 위험도 실태 조사 (미국)
- ⑧ 대규모 행사시 교통운영 관리를 위한 '태스크 포스'팀 발족 (로드아일랜드州: 뉴포트市)
- ⑨ 환승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새로운 안내시스템 구축 (멜버른)
- ⑩ 개인별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휴스턴)
- ⑪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주택용자 인센티브 제공 (오리건州: 포틀랜드市)

사회복지·문화

- ⑫ 노인들의 골절상해 예방 및 치료와 자립 지원 (빅토리아州: 멜버른市)

행재정

- ⑬ 인터넷 기반 GIS 정보가 새로운 기업 유치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대두 (미국)

① 새크라멘토 대도시권의 7가지 성장 원칙 (새크라멘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대도시권은 7가지 성장원칙에 근거한 2050년 장기종합계획을 최근 완성했다. 市가 제시한 7가지 성장원칙은 ① 다양한 교통 수단 제공, ② 혼합용도개발, ③ 압축개발, ④ 다양한 주거공간 제공, ⑤ 기 개발지의 이용 활성화, ⑥ 질 높은 디자인 도모, ⑦ 자연자원 보존이다. 市는 이러한 성장원칙에 근거하여 대도시권내의 재활성화지역과 신개발지역을 평가했다. 이와 관련한 종합계획도면은 웹사이트에서 PDF로 이용이 가능하다.

(www.sacregionblueprint.org/sacregionblueprint/the_project/discussion_draft_preferred_scenario.cfm)

② 다운타운 재활성화 계획 추진 (애리조나주: 피닉스市)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Phoenix)市는 다운타운의 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현재 추진중이다. 우선, 市는 경전철(light rail)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애리조나주립대는 15,000명 규모의 다운타운 캠퍼스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市는 각종 이벤트 유치를 위해 기존의 컨벤션(convention) 센터를 3배 규모로 확장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객실 1,000여개 규모의 호텔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市는 인프라 건설, 그리고 다양한 인구 구성과 경제활동을 활성화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도시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www.azcentral.com/arizonarepublic/news/articles/1017downtown-container.html)

③ 정보기술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저소득층 커뮤니티 활성화 (필라델피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는 북부(North Philadelphia) 근린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과 각종 정보기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커뮤니티 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갖추어진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이 근린지역은 저소득층 히스패닉과 흑인들의 집중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각종 정보기술에 소외되어 있고 실업률도 높아, 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시는 인터넷과 정보기술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philly.com/mld/inquirer/news/local/9888996.htm)

④ 민간수법의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의 관리수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都는 민간의 관리수법을 참고하여 청소나 공조설비의 유지관리 등에서 항목별 표준사양 및 단가를 기입한 문서표를 작성하고, 관리담당자가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민간 컨설턴트와도 계약하여 관리의 효율화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최근 都는 연상면적 10,000㎡ 이상의 대규모 공공시설 93개에 관한 유지관리 상황을 조사했다. 이 중 관리수법의 개선이 요구되는 10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컨설턴트를 투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都는 민간 컨설턴트에게서 건물용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수법을 제안받아 2005년도 이후의 관리위탁계약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144억 5천만엔에 달하지만, 민간의 시설관리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 2004. 10. 20)

5 도로정비사업에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도입 (동경)

일본 東京都는 최근 고쿠분지(國分寺) 3·3·8호 후츠토코로선(府中所線)의 건설계획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이는 건설계획을 결정하기 전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검증하는 계획단계에서의 접근으로, 도로정비에서 이러한 평가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도로정비는 2010년에 착공하여 2015년에 완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 都는 약 2.5km에 이르는 이 구간에 도로 폭 36m, 왕복 4차선의 차도와 함께 보도 및 식재대 등을 연선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방향의 간선도로를 정비하여 교통정체를 완화시키고, 재해시 피난도로로 활용할 예정이다. 都는 2002년에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할 것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도요스아리(豊洲新) 시장(江東區) 건설계획에서 이러한 평가가 실시된 바 있다.

(일본경제신문, 2004. 10. 15)

6 조경 및 경관계획 분야의 '2004 Peter-Joseph-Lenne賞' 수여 (베를린)

독일 베를린시는 최근 베를린공과대학에서 제37회 'Peter-Joseph-Lenne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1965년부터 시작된 이 賞은 조경 및 경관계획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큰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공모 주제는 크게 3영역으로 나뉘는데, 올해의 주제는 '조경분야'에서는 베를린 중심지의 고성에 대한 조경계획, '도심의 녹지정비계획분야'에서는 베를린 'Mauerpark' 근처의 새로운 주거지역에 대한 환경조성계획, '경관계획분야'에서는 폴란드 인접 특정지역에 대한 경관계획적 개념의 제안 등이었다. 올해에는 총 16개州에서 200명이 참가해 '조경분야'에 81작품, '녹지정비계획분야'에 2작품, '경관계획분야'에 21작품 등 총 104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市는 수상작품을 10월 23일~11월 7일까지 베를린공과대학에서 전시하고 있다.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

7] 학교 주변의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서의 어린이 위험도 실태 조사 (미국)

미국의 시민단체 'The National SAFE KIDS Campaign'은 미국 전역에서 학교 주변 등하교길의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위험도 조사 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87.3%가 4가지 위험요소 중 적어도 1개의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아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가지 위험요소는 첫째, 운전자가 일단정지 신호를 무시하거나 불법회전하는 행위, 둘째,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관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셋째, 제한속도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넷째, 보도 연석 경사로(curb ramp)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그 위치가 잘못된 경우 등이다. 이번 조사는 35개주 51개 도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의 102개 교차로와 204개의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3,640대의 차량 운전자의 운전 행태가 조사되었다.

(biz.yahoo.com/prnews/041006/dcw002_1.html)

8] 대규모 행사시 교통운영 관리를 위한 '태스크 포스' 팀 발족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시)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교통부의 교통운영센터는 대규모 행사시 교통운영 관리를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최근 발족했다. 이는 대규모 행사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추진된 것이다. 앞으로 '태스크 포스'팀은 대규모 행사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교통량 집중현상의 발생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역할 등을 조율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특히, 특정지역의 행사가 주변지역의 교통 상황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파악하여 사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팀의 팀장은 뉴포트시의 경찰서장이 맡았으며, 경찰관계자 및 주교통부 공무원 등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다. (www.dot.state.ri.us/WebNews/digest/Fall2004.pdf)

9 환승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새로운 안내시스템 구축 (멜버른)

호주 멜버른시의 대중교통 운영기관 'Metlink'는 대중교통 환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지시 안내판과 전자 정보 안내판을 주요 환승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관련당국은 이를 위해 기존의 안내판을 새로운 체계를 갖춘 안내판으로 전격 교체할 예정이며, 전자 정보 안내판을 역사내 주요 지점에 설치하여 운행 변경사항 등을 승객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다. 시는 이와 같은 안내시스템이 복잡한 환승역의 구조에 익숙치 않은 승객들에게 편리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새로운 안내판은 2007년까지 209개의 전철역, 1,800개의 노면전차 정류장 및 2,500개의 버스 정류장에 대대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한편, 'Metlink'는 철거예정인 기존의 안내판을 일부 대중교통 매니아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www.dpc.vic.gov.au/domino/Web_Notes/newmedia.nsf/955cbeae7df9460dca256c8c00152d2b/5ca4a9b1227f7647ca256f1f00003cee?OpenDocument)

8 개인별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휴스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대도시권 지역의 도로교통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TranStar'는 최근 이용자별 맞춤형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에게 실시간 통행시간 및 교통사고 정보 등을 이메일, 휴대전화, PDA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것으로, 가입자는 원하는 시간대 및 도로구간에 한정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현재 약 3천명이며, 이용자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사전에 적절한 출발시간 및 통행경로를 산정함으로써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www.newsrouter.com/NewsRouter_Uploads/6/news_release.asp?intRelease_ID=1613&intAcc_ID=6)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세계도시동향 ■

④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주택용자 인센티브 제공 (오리건주: 포틀랜드市)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대도시권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용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스마트 통근 프로그램(Smart Commute Initiative)」을 최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교통비용을 절약하면, 주택 용자금을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을 전환할 경우, 절약되는 교통비용이 1가구 1인 근로자는 매월 200달러, 맞벌이 근로자는 매월 250달러라고 한다. 관련당국은 이 프로그램이 주택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교통체증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ortland.bizjournals.com/portland/stories/2004/10/11/daily9.html)

④ 노인들의 골절상해 예방 및 치료와 자립 지원 (빅토리아주: 멜버른市)

호주 빅토리아주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골절관련 상해가 연 18,400건에 이르고, 2002~2003년도에는 이들의 치료를 위해 5천8백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골절관련 상해 예방 및 골절상해를 가진 노인들의 치료와 자립에 연 5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첫째, 골절예방 및 악화방지 프로그램 확대 실시, 둘째, 이를 통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셋째, 골절은 노령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개선활동 등의 세부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www.dhs.vic.gov.au/humanservicesnews/oct04/falls.htm)

인터넷 기반 GIS 정보가 새로운 기업 유치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대두 (미국)

최근 미국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지리정보(web-based GIS) 이용가능성이 새로운 기업 유치나,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 유치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인터넷 기반의 지리정보데이터를 통해 미리 해당 도시의 적정부지를 선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80%의 기업들이 새로운 후보지 선정을 위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지리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인터넷 기반 지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도시들은 이전을 원하는 기업이나 새로운 기업 유치를 위한 후보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www.governing.com/articles/10gis.htm)